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성대히 진행 행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8월 27일과 28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으며 백두산이 형상되어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고 휘날리는 청년동맹기발들이 부각되어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한 없이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하시여 주체적 청년운동의 최전성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남녀청년 대표들이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열화같은 흠토의정을 담아 꽃바구니를 드리고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 청년동맹대표단과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대표단 단장들이 축기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구호선창이 울려퍼지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청년전위》라는 웨침으로 목청껏 화답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주약과 합창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집행부를 선거하였으며 서기부를 임명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즐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현대성 및 친선단체 대표들, 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인사들과 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소개하였다.

- 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 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 3. 청년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 4.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 때 대하여
- 5.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

첫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대표들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들이 진행되는 동안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전 동맹 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내 나라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김주일 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대회장에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였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를 드려요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에게》를 랑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먼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후보자들 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다음으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들 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이 발표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로 전용남, 비서로 박철민, 장현철, 배충일, 김경준, 리성호, 장룡길, 정영원, 함광철, 리금철이 선거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청년전위신문사 책임주필이 임명되었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진행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데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할데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오르는 장내는 크나큰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충정을 담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기발을 영원히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맹세를 다

지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의 구호선창에 화답하였으며 최고사령관기와 청년동맹기발, 붉은기를 흔들면서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대회에서는 다섯째 의정 《청년동맹 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새로 선거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책임임기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당의 높은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고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주체적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토의정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대회는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며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경축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 성대히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경축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가 8월 28일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야회장인 5월 1일 경기장은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내여주시고 주체청년운동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흠품과 열화같은 신뢰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야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청년전위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해불야회 시작을 알리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발언에 이어 해불봉을 추켜든 주체혁명위업계승자들의 대오가 입장하였다.

특색있는 해불대형변화가 펼쳐지는 야회장에 『계승』, 『청년강국』, 『우리



는 혁명의 계승자』, 『청년동맹 제9차대회』라는 글발이 부각되었다.

『혁명의 계주봉』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야회장에 달려나온 3명의 청년학생들이 500만 청년전위들의 굳은 맹세를 담아 봉화대에 불을 지펴였다.

만리마시대청년봉화에 거세찬 불길이 솟구쳐오르자 야회장은 격정파 환희로 설레이고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라는 제명이 배경대에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기 를 모신 무개차가 청년전위들의 용위

를 받으며 야회장에 들어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오르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과 『영원한 태양의 청년동맹』 등의 글발이 친란한 빛을 뿌리였다.

『1927. 8. 28』, 『1946. 1. 17』, 『1996. 1. 19』, 『한별』, 『광명성』, 『청년전위』, 『원수님 모시여 빛나는 청년강국』의 글발이 부각되고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였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의 글발이 배경대에 새겨지며 야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총천하는 화광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선군청년문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 『백두혈통』,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 『수령보위』의 글자를 새기며 해불대오는 도도히 굽이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라 혁명의 해불봉을 더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열혈청춘들의 신념의 분출인양 야회장에 『영원하라 청년강국의 해불이여!』의 글발이 펼쳐지고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였다.

야회가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미더운 청년전위들에게 따뜻이 손

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가 조직성과 규률성, 예술성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이며 만점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전체 출연자들과 창작가, 지도교원,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환희와 격정이 차넘치는 장내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청춘송가』가 울려퍼지면서 청년학생들의 경축의 춤바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활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태양성지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남녀청년들이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다함없는 흠품과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 고상한 사회주의미풍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이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멀치는데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격정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이 손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의 선봉에서 우리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활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

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보다 높은 단계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공화국의 핵무력과 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진보를 이룩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격정에 겨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지며 우리나라를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로케트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금강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동포애를 길이 전하여 갈 것입니다

8월 29일은 총련 금강산가국단 결성 42돐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의 흐름속에 우리 가족단의 세대도 여러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할수도 달라질수도 없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천하절승 금강산의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우리 가족단의 사명입니다.

추억의 둑을 달고 우리 가족단이 무어지던 첫 기슭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남녘겨레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동포애의 세계가 뜨겁게 흘러들어 봇을 들었습니다.

1

감회도 새로운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2돐을 하루 앞둔 1974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축원의 마음을 안고 평양을 찾아온 우리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의 공연을 몸소 보아주시였습니다.

초상화에서 빠오며 운명의 태양으로 우러르던 어버이수령님을 직접 몸가까이 모시고 공연을 하는 행운을 받아안았으니 어떻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꿈만같아 눈물만 앞서 군합니다.

제가 그 무상의 영광을 가요 《끌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에 담아 불러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잘하오! 아주 훌륭하게 부릅니다!》라고 하시며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고 몸소 재청까지 하여 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하늘같은 축복을 받아안으며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를 부를수록 저도 몰래 눈굽이 젖어들고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물결쳐왔습니다.

바람도 거친론 이역땅에서 갖은 민족적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저희들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종련을 무어주시고 우리들을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시며 마침내 인생의 새봄을 맞이하고 마음껏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크나큰 격정이 북받쳐와 저는 노래를 미처 다 부르지 못하고 호느껴울었습니다. 멀리는듯 한 편현악선들이 저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말없이 눈가로 손수건을 가져가시는것이였습니다.

진정 수령님의 그 모습에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위하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정이 비껴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크게 박수를 쳐주시며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에서 일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만이 아닌 온 겨레를 위한 원대한 구상이 무르익어가고있는 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저희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던 수령님께서는 총련예술인들이 조국에 처

음 왔는데 공연만 하지 말고 조국의 예술을 배워가는것이 좋겠다고, 혁명가족 《금강산의 노래》를 배워가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후에 들은데 의하면 그해 3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총련예술인들이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조국에 오게 된다는것을 아시고 평양대극장에서 공연하는 혁명가족 《금강산의 노래》를 보아주시며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에게 《금강산의 노래》를 안겨주자고, 예술단동무들이 조국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가족을 배워가게 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본땅에 휴물아칠 혁명가족 《금강산의 노래》의 열풍을 그려보며 격정을 금치 못해 하는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총련에서 가족을 배워가지고 가서 일본에 다녀가는 남조선인민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금강산은 지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안팎의 분별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금강산에 와보지 못합니다.

오스트랄리아기자 버체트는 〈금강산의 노래〉를 보다가 조국에 두고 온 딸을 생각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금강산의 노래는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과 나라의 분별로 하여 고통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큰 감명을 줄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고생하는 60만재일동포들에게 좋은 선물로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금강산 가족단을 무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겨레의 심금을 울려주는 숭고한 동포애의 세계입니다.

약 1여년전인 중생대에 생긴 화강암체가 식어서 굳어지고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의해 천태만상의 경관을 이루었다는 금강산은 누구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조선의 절승입니다.

그러나 봉건의 질곡과 학대속에서, 수십년간의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수난의 세월 우리 인민의 꿈은 이루어질수 없었습니다.

더우기 금강산을 지체에 두고도 가보지못하는 남녘의 겨레들, 통일되기 전에라도 금강



금강산 비로봉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시는 위대한領導자 김정일장군님

명승지로 더욱 훌륭하게 꾸려주시기 위해 몸소 현지를 찾으시었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세계에 아름답기로 이름높은 조국의 명산 금강산을 우리의 선조들은 한번 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 인민들이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생활을 하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에울수 없었던 쳐지에서 금강산을 구경할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고 가슴아픈 심정으로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누구나 선참으로 물어보는것은 천하절승 금강산에 가보았는가 하는것입니다. 나는 이 가족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고생하는 60만재일동포들에게 좋은 선물로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금강산 가족단을 무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겨레의 심금을 울려주는 숭고한 동포애의 세계입니다.

금강산을 조선의 기상으로 간직하고 꿈속에서도 가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포들이 인민의 락원으로 우뚝 솟은 금강산을 통채로 떠옮긴것 같이 황홀하고 신비한 혁명가족 《금강산의 노래》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더우기 금강산을 지체에 두고도 가보지못하는 남녘의 겨

산만은 꼭 보고싶다고 하는 그들이 이 가족을 보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클것입니다.

하루빨리 가족을 배워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동포에 가 어린 선물을 재일동포들과 남녘겨레들에게 안겨주자.

예술단성원들의 심장은 이 하나의 지향으로 높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모로 보나 미흡한 저희들이 세계 가족예술의 최고경지에 오른 《페바다》식 혁명가족을 형상하는것이 쉬운 일은 아니였습니다.

대사와 노래, 무용이 동반되고 인물들의 내면심리를 깊이 있게 펼쳐보여야 하는 가족의 세계에 심취되고 매혹될수록 너무도 부족한 자신들의 예술적준비정도와 기량을 두고 가슴태우며 잠못 이룬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바로 이 러한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가족이라고 하여 신비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마음먹고 해보느라며 담도 커지고 기량도 높아진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가족전습에 필요한 은정 어린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동포에, 우리 총련예술인들에 대한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은 기적을 낳아 마침내 한달만에 우리는 전습받은 가족을 무대에 올릴수 있었습니다.

1974년 6월 27일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

는 길로 평양대극장에 나오시여 우리들의 공연을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140여명이나 되는 전체 성원들에게 일이 축배잔까지 짚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일본으로 돌아가면 금강산가국단을 꾸리고 혁명가족 《금강산의 노래》를 공연하여 총련과 《민단》동포들, 일본에 오는 남조선동포들과 일본인민들에게 보여줄데 대하여 하여 거듭 당부하시였으며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조국에 와서 새 작품들을 배워가도록 하라고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습니다.

이후에는 가족의 주요장면들과 조국방문의 나날에 새로 배운 춤과 노래들을 형상하여 중국과 로씨야, 도이췰란드, 태평양건너 미국땅에까지 건너가 공연무대를 펼쳤습니다.

공연무대가 펼쳐지는 곳마다에서 동포사회가 환호하고 세상 사람 누구나 박수갈채를 터칠 때마다 기쁨과 환희로 일어번지는 저희들의 가슴에 미여지게 새겨지군 한것은 총련예술단만이라도 남조선에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였습니다.

한피줄을 나눈 그리운 혈육들이 살고있는 땅, 꿈결에도 그려보는 남녘의 겨레들을 찾아 금강의 향취, 민족의 향취가 넘쳐흐르는 노래를 싣고 춤을 싣고 춤창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릴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고 통일의지로 심장을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2

며장구름이 아무리 두터워도 태양의 빛발은 찬연히 비쳐들기 마련입니다.

남녘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못해하시며 그들에게 금강산을 보여주고 싶으시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에 받들려 마침내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826명의 관광객을 태운 배가 첫 고동소리를 울리며 동해의 한 항구를 출발하였으며 금강산을 보았으면 하는 남녘겨레의 소원은 드디어 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온 세계를 격동시킨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망동으로 정세가 국도로 점예한 때였습니다.

더우기 금강산지역으로 말하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대치되어 있는 최전연지대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녘겨레의 절절한 심정을 헤아리시여 금강산관광길을 열어주시였습니다.

공연을 시작하여 불과 3일동안에 만도 총련과 《민단》산하동포들은 물론 남조선동포들과 일본인민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등 1만 1,000여 명이 가족을 관람하였습니다.

《도교한복판에 조선의 금강산이 솟아올랐다.》

《매혹적인 공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금강산에 올라 풍물맞이 하자.》

《이 가족을 서울이나 부산에서 공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남녘동포들에게 금강산을 보여주고 싶어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소원이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드디어 풀렸다고 눈물속에 아뢰이고 또 아뢰였습니다.

(4면으로 계속)

청년들이 추켜든 해불봉

주체 84(1995)년 10월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경축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애희와 해불행진이 있었다. 애희가 끝나고 해불행진을 시작할 시각이 되었을 때였다.

행사에 참석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열광의 환호가 광장을 진감시키는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해불봉을 두 남녀청춘들에게 넘겨주시였다.

이어 그 해불봉을 선두로 10만명 청년학생들의 해불행진대열이 보무당당히 광장을 누비었다.

그날 장엄한 해불행진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의 해불행진이 씩씩하고 힘이 있다고, 해불행진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고 있는 조선청년학생들의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세대들에게 넘겨주신 해불봉에는 조선청년들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완성의 길에서 청년전위가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해불이 되라는 크나큰 기대와 고무가 담겨져있었다.

꺼지지 않는 《해불》이 되라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며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이고 결심이다. 그이의 지도와 보살펴심속에 축구종목에서 《해불》팀이 새로 조직되었을 때였다.

어느날 팀의 선수, 감독들은 뽕을 차도 청춘답게 멋지게 차라는 뜻에서 팀의 명칭도 지어주시고 팀의 축구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맞게 축구기술과 경기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결의를 담아 그이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그들의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친필을 보내시였다.

『나라의 축구열풍을 일으키는데서 꺼지지 않는 《해불》이 되라!

김정은

2013. 7. 24』

첫 걸음부터 국내축구경기력사에 자랑스러운 페지를 남기고 있는 그들의 빠른 발전을 높이 평가하시며 앞으로 더 좋은 경기성과들을 기대한다는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본사기자

(3면에서 계속)

금강산으로 향한 배고동소리가 통일의 배고동소리처럼 겨레의 심금을 울리며 더 크게 울려 퍼질수록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남녘동포들을 찾았습니다. 남조선인민들도 우리 금강산 가족단을 기다렸습니다.

1999년 남조선잡지 『말』은 『금강산가족단 매년 일본 전국 50여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 이들의 노래, 이들의 춤동작을 보면서 서울시민들이 박장대소 할 날은 언제쯤일가』 하며 우리 가족단에 대해 크게 소개하였습니다.

금강산의 노래, 통일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서울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달음쳐갈 우리의 소망은 6.15해빛 아래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로 북파남, 해외가 끊어번지던 격동의 해 2000년의 12월 우리들의 첫 공연이 서울의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옹해야, 금강산가족단이 왔다.』, 『재일교포사회 최고인기예술단체 금강산가족단』, 『이달에 불만 한 공연』, 『꿈속에서도 기다려온 통일의 노래와 몸짓』 등 다양한 제목들을 달고 우리들의 공연소식을 대서 특별하였습니다.

공연에 앞서 소개자는 감격에 넘쳐 『통일되기 전에는 못 올줄 알았던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소개자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 총련예술단만이

민족대업의 앞장에 청년들이 서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하신 혁사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투쟁과 업을 받아안은 북파남, 해외의 모든 조선청년들의 심장은 지금 크나큰 격동과 환희로 고동치고 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민족분렬의 고통을 끌끌내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민족대업의 앞장에 민족의 아들딸이고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은 정녕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파남, 해외의 모든 조선청년들은 민족자주의 가치,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치고 련대련합하여 투쟁함으로써 미제와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고 겨레의 단합을 이루하며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여 온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다.

장장 70여년을 헤아리는 이 투쟁의 앞장에서 언제나 돌파구를 열어제껴온 것은 다름아닌 청년들이였다.

공화국의 청년들은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짧은 기

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는 영웅조선의 기적을 안아왔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판가름하던 반제반미대결전의 준엄한 시기에도 공화국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하였으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처럼 공화국의 청년들은 높은 애국적현신성을 발휘하여 부강조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왔다.

남조선청년생들도 력대보수당국의 탄압과 교활한 기만술책에 굴하지 않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영웅한 기개를 유감없이 멀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서 선봉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왔으며 그들의 의로운 투쟁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 있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렬이 어언 70여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오늘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자작파제로 나서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시대는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북파남의 청년들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

민족의 앞장에 서야 하며 조선민족의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공동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시대와 혁사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그것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랑과 열정, 용감성과 패기, 왕성한 힘과 정의감을 지닌 청년들에 의해 국가의 전도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기때문이다.

모든 조선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3대현장파 혁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에서 서야 하며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생들의 투쟁과 해외동포청년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현장은 통일의 길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 통일의 리정표이다.

북파남, 해외의 모든 조선청년들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민족분렬의 고통을 끌끌내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 청년들을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를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리성심

구장에 다시 저희들을 세워주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2014년 8월 29일, 총련금강산가족단 결단 40돐을 맞으며 또다시 혁명가곡 『금강산의 노래』를 펼치던 그날 저희들은 크나큰 감격에 눈시울 적시며 우리 가족단의 명칭과 더불어 길이 전할 금강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동포애의 세계를 감회깊이 새겨보았습니다.

그리느라니 금강산의 1만2천봉우리들이 활활경을 자랑하는 기묘한 봉우리들로만 안겨오지 않았습니다.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통일의지, 뜨거운 동포애를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로 가슴속에 더욱 숭엄히 빛발쳐왔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맷어온 그 정을 운명의 퍼즐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금강산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통일애국의 한길을 끽끗이 이어가겠습니다.

금강산가족단은 동포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는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넋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애국열의를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심을 삶의 좌우명으로, 예술활동의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주체적해외민족예술단체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를 이어 부르는 금강산의 노래와 더불어 금강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동포애는 길이 전하여질것입니다.

금강산가족단 고문
홍령월

노래하자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긴긴세월 눈물로 아픈상처 씻으며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게 한 금강산가족단의 공연은 금강산에 깃든 우리 수령님들의 동포애의 세계를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주며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6년 6월 북남공동선언발표 6돐을 맞으며 첫 공연을 경기도에서 진행하였는데 공연이 끝나자 기자들이 가족단을 인솔하고 온 저를 둘러싸고 해외예술인으로서 크게 성공할수 있은 비결에 대해 묻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30여년 전 화창한 4월에 받아안았던 크나큰 감격이며 혁명가족 『금강산의 노래』를 남녘겨레에게 보여주고싶으시여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통일애국의 길로 고무추동하도록 성장의 걸음걸음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데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우리 금강산가족단을 애지중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동포애, 숭고한 통일의지를 일본을 비롯한 해외동포사회와 남녘겨레들에게 심어주기를 바라시는 뜻에서였다고 봅니다. 바위도 녹일 우리 수령님들의

열화의 동포애, 민족애에 받들려 성장의 나래를 펼치고 명성을 떨쳐온것이 우리 금강산가족단의 혁사입니다.

가요 『우리는 하나』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예술인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이번에 조국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좋은 노래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시면서 노래형상이 완성되면 총련에 제일먼저 보내주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같은 동포애를 전하는 민족의 가수, 통일의 가수로 영원히 무대와 함께 서 있을 결의를 굳게 가다듬으며 일본방의 동포들을 찾고 남녘겨레들을 찾군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도 그러한 나날의 편속이였습니다.

한해가 저물도록 저희들은 남조선각지에서 공연무대를 펼치고 앞으로 남조선예술인들과의 합동공연의 꿈도 속삭이였습니다.

설달그믐날을 며칠앞두고 떠나는 우리를 남조선의 각계층이 따라서며 배래워주었습 니다.

『언제 또 볼수 있을까요. 꼭 다시 만납시다.』

그런데 그것이 남녘땅에서 진행하는 마지막공연으로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집권하기 바쁘게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대가』니, 『퇴물제공』이니 하며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으려고 갖은 말악을 다하였습 니다. 그리고는 불미스럽게 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하의 매문집단, 민족반역의 무리들인 극우보수언론들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경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억센 기상에 기절초풍한 박근혜 패당은 지금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우리의 총정의 200일 전투를 포함하고 험난한 모략전에 미친듯이 매달리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련합뉴스》, 《뉴스1》, 《데일리NK》를 비롯한 피뢰보수언론들은 《원료와 자재 난으로 공장, 기업소들의 가동률은 20~30% 수준이다.》느니, 《200일 전투의 참여를 강요받는다.》느니, 《주민들의 고된 노동과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느니, 《민생부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시위형 전투에 지나지 않는다.》느니 뛰어나는 헛나발을 불어대며 200일 전투의 눈부신 성과들을 꺾아내리려고 별의 별 악담질을 다 해대고 있다.

지어 우리의 200일 전투를 터무니 없이 외곡하는 모략언론을 류포시키면서 마치 제놈들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는듯 한 랑설까지 펴뜨리고 있다.

악질보수언론들이 이러한 여론 조작행위는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악랄한 정치적도발이고 200일 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듯이 총정의 200일 전투는 우리를 굽복시키려고 《제재》와 《압박》의 칼을 휘두르며 미친듯이 달려드는 간악한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쳐내깔리며 만리마속도 창조의 불길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용대한 목표를 앞당겨 실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영웅적 대진군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적의 핵강국, 강위력한 정치사상강국

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치며 오늘의 200일 전투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영웅적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가고 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악감과 거부감이 빠속까지 들어찬 박근혜 패당과 극우보수언론들은 이에 대해 악의에 찬 갖은 혐담질을 다하고 있다.

지어 그 무슨 《대북소식통》에 의하여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려명거리건설을 시비증상하다못해 《건설자금을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걷어들이고 있다.》느니,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을 급식시키고 있다.》느니, 《로동환경이 노예로동수준》이라느니 뛰어나는 황당하기 짹이 없는 여론까지 날조하여 내돌리고 있다.

언론은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선각자이며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이다.

더우기 국토분열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언론이란 마땅히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청와대마녀의 사환군이 되여 동족을 포함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도발적인 악설을 마구 토해내는 피뢰악질보수언론들의 역겨운 행태는 저들 스스로가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집단, 권력의 시녀로서 종오와 멸적의 대상인 박근혜년과 한짝을 이룬 더러운 매문집단이라는 것을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낼뿐이다.

북남관계가 오늘에 와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동족사이에 불신파적대감이 국도에 이른데는 청와대 대결파신자의 장단에 춤을 추는 보수언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피뢰보수언론들의 비렬한 나발질은 200일 전투에서 우리 군대와 인

민이 련일 세인을 놀래우는 대기적, 대비약을 이루하고 있는 눈부신 현실앞에서 속이 뒤집혀지고 부아통이 터져올라 죄쳐대는 가소로운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뢰보수언론들의 그 어면 궤변도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의 장엄한 대진군의 대하는 막을수도 가리울 수도 없다.

추악한 어용언론들의 서풀짜리 악설따위에 그 눈부신 빛발이 흐려질 우리 체제가 아니며 그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피뢰보수언론들이 날로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날조된 여론조작책동에 매달리고 있지만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향한 주체조선의 만리마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솟구쳐오를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하의 매문집단이고 민족반역의 무리들인 극우보수언론들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언론사들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는 그날에는 반드시 온 겨레의 이름으로 계산할것이다.

반공화국도약소동에 매달리는 어용문가들은 그 더러운 악당질의 대가가 어떤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량심적인 언론인들은 정의와 진리의 봇대를 더 억세게 틀어잡고 북남관계를 헤여날수 없는 파국상태로 몰아가는 박근혜 패당과 그 앞잡이들인 극우보수언론들에 된매를 안기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워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제 105(2016)년 9월 1일
평양

북남관계를 결딴낸 대결광녀

현 남조선집권자의 동족대결광증으로 북남관계는 사상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지난 8월에 만도 월미공원에 있는 《충혼탑》 참배광대극과 반공화국영화인 《인천상륙작전》 관람놀음을 벌린 현 집권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라는 것을 열고 공화국의 명진로선을 악의에 차서 험들으며 《싸드》 배치결정을 합리화하다 못해 남조선군의 전방부대들을 싸다니며 《북의 도발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느니 하며 목에 피대를 둘구었다.

남조선당국자의 동족

대결광기는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을 품임없이 벌려온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집권초기부터 미국의

3대핵타격수단들을 전부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책동

에 광분한 현 당국자와 호

상모독하면서 북침전쟁열

을 고취하여온 히스테리

적지랄광증의 련속과정이

였다.

집권첫해에 벌써 그 무

슨 《격》 문제라는 것을

내들고 어렵게 마련되었던 북남당국회담을 파탄

시키고 북남수뇌상봉대화

록까지 공개하며 대결광

기를 부린 남조선당국자

는 《국회》를 암박하여

《북인권법》을 강압적

으로 조작해냈을뿐아니라

남조선에 유엔 《북인권사

무소》라는 것까지 끌어들

이고 《국제사회가 무력

개입을 할수 있는 근거》

를 만들어야 한다는 망발

까지 꿰리낌없이 죄쳐대

였다.

현 집권자는 6.15의 옥

동자이고 북남관계의 마

지막명줄이었던 개성공업

지구마저 폐쇄해버렸으며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

영하여 조국해방 일흔한

들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제안을 한사코 거부하고 《8.15경축사》라는 서까지 반공화국대결악담을 쥐쳐대여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총으로부터 《〈대북정책〉은 없고 대결 암심만 남은 박근혜》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북지뢰도발사건》을 조작하고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지역에 포탄까지 쏘아대며 일축족발의 위험천

만한 사태를 몰아온 남조선보수당국은 그후에도 서해해상경계선일대에서

인민군함선에 포사격을 가하는 등 군사적도발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까

지도 남조선당국의 분별

없는 군사적도발책동이

조선반도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극단상황으로 몰아갈수 있다고 우려를 자아냈겠는가.

올해에만도 남조선호전세력은 미국과 야합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16》 학동군사연습을 강행한데

이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일축족발의 핵전쟁경

경에로 몰아갔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가 무모한 전쟁도발의 진원지이다.》.

《국민을 전쟁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박근혜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

현 남조선집권자의 동족

대결광증—이것은 의학

서적에서도 찾아볼수 없

고 인류가 이룩한 현대의

학으로도 어쩔수 없는 난

치의 병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재앙파

망신만을 가져다주는 청

와대의 미친 할미에게 온

거제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유영철

인권유린자를 가소로운 《인권》 모략소동

최근 박근혜 《정권》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이 도수를 넘어 극한점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국무회의》에서 《북인권법시행령》이라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조작해낸 《북인권법》이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남조선당국은 통일부에 《북인권법》을 기록한다는 《북인권기록센터》와 《북인권실태조사》, 《대북인권단체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북인권재단》을 내오고 법무부에는 《북인권기록보존소》를 따로 설치하여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북인권 국제협력대사》라는 직제를 새로 만들어 《북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해보려 미쳐 날뛰고 있다. 여기에서 제일 앞장서고있는것이 청와대의 안방에 등지를 튼 박근혜이다. 《북인권법》 시행과 관련하여 박근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북인권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느니, 《북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느니 하고 페리를 돋구었다.

사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제는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할 한 조박의 체면도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정권》을 강탈한 이후 남조선은 파쑈적억압과 폭거가泛무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

광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남조선당국은 《세월》호 참사진 상구명과 《로동법개정안》, 군육적인 일본군 성노예문제 《합의》, 련이어 일어나는 집권층의 부정부패사건 등에 의한 각계층 인민들의 비발치는 항의와 규탄으로 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끌며리를 끊고있다.

특히 《싸드》 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날을 따라 격렬해지고 있으며 조선반도주변나라들까지도 《싸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군사적대응까지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정권》의 목줄을 더 한층 조이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박근혜 《정권》은 집권후 사상최대의 위기국면에서 허덕이며 몸부림치고 있다.

결국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은 위기국면의 출로를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서 찾고 이렇듯 필사적으로 발악해나서고있는것이다.

사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제는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할 한 조박의 체면도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정권》을 강탈한 이후 남조선은 파쑈적억압과 폭거가泛무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

존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의 불모지로 더욱화하였다.

합법적으로 출현한 진보적정당이 《종북》으로 몰려 해체를 강요당하고 야당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어 백주에 《국회》 청사에서 련행되는가 하면 정의와 민주, 진보와 통일을 주장하는 의로운 단체들과 인사들이 《리적》으로 몰려 탄압의 대상으로 되는 등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것이 남조선현실이다. 생존권을 요구하여 일떠선 로동자, 농민들의 시위를 최루탄과 물대포를 퍼부으면서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곳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악정과 생활고에 시달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는 곳도 다른이 아닌 남조선이다.

오죽했으면 유엔에서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국제적으로 해마다 남조선의 《언론자유》 수준이 가장 한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겠는가. 더우기 공화국의 공민들을 백주에 집단납치하여 끌고 가족들과 생리별시키고 아직까지 부당하게 감금해놓고 있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세상에 보기 드문 반인륜범죄자들이다.

박근혜 《정권》은 북남

관계악화를 부채질하는

《북인권법》 시행놀음이

돌이킬수 없는 화를 초래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두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하나는 북의 려명거리전설이고 다른 하나는 남조선의 《싸드》 배치이다. 지맥은 하나로 이어진

누구나 경탄한다

착공한지 단 몇 달만에 웅장한 면모를 과시하며 자체를 드러낸 려명거리에는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려낼까 하고 있다. 처음 려명거리전설계획이 알려지 고 올해 중에 건설을 끝낸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누구나 놀라움에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그처럼 규모가 큰 하나님의 거리를 그 것도 적대세력의 《고강도 제재》가 실시되는 속에서 순수 자체의 힘과 기술로 21세기 에너르기절약형거리, 륙색형거리로 일떠서 운다고 하니 누군들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때로부터 불과 몇 달, 지금 이 지역에는 웅장한 살림집들이 수풀처럼 일떠섰다. 말그대로 세상에 없는 건설속도였다. 려명거리전설장에서도 제일 높은 70층 살림집 플로공사는 불과 74일 만에 끝나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이곳 건설현장을 돌아본 외국인들도 저마다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려명거

려명거리로 보는 북, 《싸드》로 보는 남

한강토이지만 그 목적이나 분위기, 상징성 등에서 너무도 판이한 두 현실이다.

의 그 어떤 모친 광풍이 불어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자주와 정의의 한길로 굳세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억센 자주적대와 불굴의 기상은 엿볼수 있다.

려명거리전설에는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국가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어려 있다.

려명거리의 살림집들은 국가가 인민들을 위해 마련해주는 최신식의 살림집이다. 경치좋은 거리에 크고 아담하게 꾸려질 집들에는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행난방과 환기, 조명이 보장되며 모든 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게 된다.

누구나 부러워할 이런 황홀한 집들에 보금자리를 짓는 것은 교육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인민들이다. 정말 거리를 하나 세워도 인민을 위해 그것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는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늘을 치받으며 솟아난 려명거리의 웅장한 살림집들을 보느라면 최후 승리의 영마루에 걸 풍노도처럼 내닫는 공화국

의 기상이 가슴뿌듯이 안겨온다.

시간은 이 땅이나 다른 지역이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공화국에서는 10년이 1년으로 앞당겨지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게 눈부시게 변화하며 비약하고 속구치고 있다.

불과 몇 달전, 착공의 첫 삽을 박을 때만 해도 벌써 이렇게 웅장한 자체를 드러내리라 누가 생각했겠

모두가

남조선에서는 미군의 《싸드》 배치가 지금 세계적인 초점으로 되고 있다. 명백히 단언하건대 《싸드》 배치는 친미굴종의 산물이다.

파연 남조선에 자주라는 게 존재하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민족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동족의 핵보검을 없애보겠다는 어리석음, 지금 남조선에 도사리고 있는 미군기지도 모자라 또 민족의 강토를 외세에 내

맡기는 대국망동, 남조선

인민들을 비롯한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외

세에 한사교 추종하는 굴

종의식이 아니고서야 어

는가. 그러나 조선에서는 불가능도 가능으로 되고 오늘의 기적도 래일에는 낡은 것으로 되며 끊임없는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

조선은 이렇게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자강의 힘으로 제재와 압살책동을 박차고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는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것이다.

배격한다

평계 《싸드》를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사대와 외세의 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민족 수난의 오랜 역사와 통하여 우리 민족이 빠아뜨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미국이 없으면 못산다는 대미의존, 굴종의식이 범람하고 미국의 한마디에 《대통령》이고 외교부 장관이고 머리를 굽꺽이며 갖은 아양을 다 떠는 남조선을 두고 일찌기 어느 누군가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조소하였다.

주변국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굴복하여 《싸드》 배치를 사생결단하고 반

대해 나서는 것도 그래서이다.

성주군과 린접한 김천시에서도 11개의 시민단체들로 김천 《싸드》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싸드》 반대초불집회를 벌리고 있으며 김천시와 성주군의 경계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투쟁을 벌리고 있다.

《싸드》 배치야말로 인민들을 개, 돼지로 보며 인민들이 죽건 말건 남조선을 외세의 핵전쟁터로 내맡기는 쓸개빠진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온 남녀여계가 분노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서 《싸드》 배치로 하여 남조선이 미국에 더욱더 종속되고 미국을 위한 희생물이 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

《싸드》 배치 결정은 인민들의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는 반인민적 처사이다.

《싸드》가 틀고 앉게 되면 려명거리의 전자기파에 의해 주민들의 건강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온 남조선 땅이 주변 려명거리의 치렬한 핵대결장으로 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은 국제 불명의 핵탄이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 속에 가슴조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았던 삶의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

성주군인민들이 《싸드》

배치를 사생결단하고 반

본사기자 김춘경



미국이 만들어가는 박근혜 《물위신작전》

요즘 《싸드》 배치 문제로 북집단한 남조선 정국을 보느라면 이것이 《싸드》 배치 미국이 박근혜를 대상으로 한 《물위신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들게 된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싸드》의 남조선 배치 문제로 하여 끌어리를 않고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다른 아인 박근혜 집권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미 《싸드》 배치지로 결정된 경상북도 성주군

에서는 수십 일째 지역주민들이 《싸드》 배치 반대를 헤치며 항의집회와 초불시위들을 려일 벌리고 있다. 총리와 국방부장관을 파견하여 지역민심을 달래느라 하였지만 오히려 깊은 혼란과 당하고 주민들의 반 《싸드》 기운은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배후세력》, 《종북》의 울가미로 위협도 해보았으나 그것도 통하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집권 세력은 성주군 내의 인가가 멀리에 있는 3후보지역으로 《싸드》 배치지를 뚫기는 문제를 상정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자 린접한 김천시 주민들은 《싸드》

드》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 위원회를 만들고 매일 초불집회 등 항의투쟁을 벌리고 있다. 8월 26일에는 남조선 전역의 곳곳에서 《싸드》 배치에 항의하여 성주군내의 《새누리당》 당원 151명이 한꺼번에 《탈당계》를 냈다. 그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차서 《대통령》도 《새누리당》, 도지사도 《새누리당》, …기밀도 돌아볼 것도 없다. 잘 가라 《새누리당》》이라고 한목소리로 웃쳤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 하던 경상도 지역에서 반박근혜 감정이 고조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지지률》도 려대고 있는 것 또한 큰 풀거리로 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싸드》 배치를 강요한 것을 보면 미국이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날낱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미국에게는 《싸드》 배치가 중요하지 박근혜 《정권》의 운명 같은 것은 하등의 관심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력대로 미국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의 친미굴종 세력의 운명을 서슴없이 칼도마우에 올려놓곤 하였다.

오래전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투쟁으로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뒤흔들리게 되자 서슴없이 박정희를 제거해나선 것도 미국이었다.

그런 미국이 오늘은 저들의 동북아시아지배 전략 실현을 위해 서슴없이 박근혜를 《싸드》 배치의 제물로 삼은 것이다.

《싸드》는 미국이 박근혜에게 보내는 보이지 않는 《총탄》이다. 이제 그 미국제 《싸드》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운명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가겠는가는 시간이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미국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기는 친미주주의 달리 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고

미국의 《싸드》 때문에 가뜩이나 민심의 배격을 받는 박근혜는 최대의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옆 친데 덮치는 격으로 《싸드》 때문에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TK지역》 민심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

이렇게 뛸 줄을 미국은

모르지 않았겠지만 《싸드》 배치를 강요한 것을 보면 미국이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날낱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미국에게는 《싸드》 배치가 중요하지 박근혜 《정권》의 운명 같은 것은 하등의 관심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력대로 미국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의 친미굴종 세력의 운명을 서슴없이 칼도마우에 올려놓곤 하였다.

오래전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투쟁으로 미국이 박근혜를 《싸드》 배치의 제물로 삼은 것이다.

그런 미국이 오늘은 저들의

최근 미국에서 대한 남조선에 대한 《싸드》 배치를 둘러싸고 상반되는 두 가지 서명운동이 벌어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재미동포 운동 단체인 《미주동포 전국협회》가 주최가 되어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 《〈싸드〉의 남조선 배치 반대》를 등록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서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에서는 어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30일 안에 10만명을 넘어서면 미국 무부가 60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되어 있고 10만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 요구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일이 이렇게 번져지자 바빠맞은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이었다. 보수당은 샌드랜드 코스 주재 총령사관 직원들을 내몰아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 《〈싸드〉의 남조선 배치지지》를 등록하고 대응 서명 놀음을 벌렸지만 한달 동안에 서명자 수가 1만명 정도로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하였다. 가관은 보수당이 《싸드》 배치지지 서명을 둘러하기 위해 재미동포들에게 《〈싸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사람들은 모두 반미, 반 《정부》 세력이며 서명 마감 날인 9월 4일까지 10만명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싸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처럼 미국측에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싸드》 배치지지 서명에 참가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분주함을 까지 펴워낸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과 해외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싸드》 배치 반대 투쟁 기운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나 《싸드》 배치 명분을 세워 강행하려는 친미사대 매국역적 폐당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추태이다.

《싸드》 배치 반대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재미동포들의 한결 같은 넘원에 따라 이루어진 정의로운 투쟁으로서 그 어떤 모략과 회유 기만 책동으로 절대로 가라앉힐 수 없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폐당이 해외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참여하고 남조선과 해외동포들까지 협박하여 저들의 사대매국당을 미화 분식해 보려는 당국의 책동을 규탄하고 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벌어진 상반되는 두 개의 서명운동이 말해주자는 바와 같이 박근혜 폐당이 제아무리 해외동포들의 투쟁까지 탄압 말살하려고 책동하여도 정의와 진리, 평화를 위한 온 겨레의 투쟁 열의를 막을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 조국통일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싸드》 배치 반대 투쟁을 계기로 박근혜와 같은 사대매국역적 폐당을 청산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결기 해나서야 할 것이다.

류하명

미국의 종국적 패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서먼》호 침입

150년을 맞으며 —

올해는 미국의 피묻은 조선침략사의 첫 시작으로 침입하였던 《서먼》호가 겹친 대동강물 속에 수장당한 때로부터 150년이 되는 해이다.

미국의 래탈적인 해외침략사에서 중무장한 근대적인 전투함선이 처음으로 격침당하

는 수치스러운 패천을 기록한 1866년.

학자로서의 량심과 의무감으로 세월의 기록들을 다시 보며 역사가 전하는 교훈과 진실을 글에 담아본다.

《서먼》호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1776년 인디안멸살의 피바다 우에서 《독립》을 선포한 미국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도발, 침략과 강탈의 죄악은 세계사에 전례 없는 교활성과 악랄성, 아만성과 포악무도 한 반인륜적 범죄로 《명성》을 떨친다.

미국의 지배층은 벌써 19세기 30~40년대에 조선침략야망을 드러내놓았으며 국내전쟁(남북전쟁)이 끝난 후 본격적인 조선침략에 나서 그 첫 시작으로 《서먼》호를 들이밀었다.

원래 《서먼》호의 이름은 《프린씨스로이얼》(제일공주) 호였는데 미국침략자들은 이 배를 1863년 수리, 개조하고 조선에 들이밀기 전에 남북전쟁시기 살인장군으로 악명을 떨친 서먼의 이름을 따서 《제네럴서먼》호라고 고쳤다. 침략장군 서먼의 이름을 단 군함을 물고 가서 함포나 몇 방 쏘면 《은둔국》 조선이 쉽게 손을 들거라고 타산한 것이다.

1866년 8월 중순 대동강 하구에 침입한 《서먼》호는 평양으로 거슬러오르면서 부녀자들을 풍우하고 감시근무진행 중이었던 평양감영의 배를 습격하여 2명의 군인을 살해하고 중군 리현익을 랍치하였다.

그리고는 조선봉건왕조에 쌀 1,000석과 금, 은 및 인삼 등을 내놓을 것을 강박하였으며 이것이 거절당하자 총포를 마구 쏘아며 양각도서쪽 여울목까지 기여들어 주변 민가의 주민들을 살해하고 대동강을 오르내리는 배들을 모조리 래탈하였다.

《서먼》호의 강도적 침략 행위에 격분한 평양군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중조할아버님 이신 김옹우선생님의 열렬한 호소에 호응하여 떨쳐나서 결사대를 무었으며 9월 2일 화공 전술로 침략선을 대동강에 수장해버렸다.

《서먼》호 사건에서 응당한

며 류혈적인 반인륜적 침략 전쟁으로 기록된 조선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를 란폭히 위반하고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영구 강점과 《합법화》 하였으며 1950년대부터 《B-52》 전략폭격기와 오네스트존대대 및 280mm 자포대를 비롯한 핵무장 장비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조선을 1,000여 개의 핵무기가 배비된 국동최대의 핵전초기자로, 미국의 핵무기 저장고로 만들었다.

《포커스 페터너 작전》, 《포트리스 게임》, 《황통작전》, 《련합기동훈련》, 《팀스피리트》, 《울지 포커스 펜스》,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대규모 북부 침습 시험 전쟁, 핵전쟁 연습을 끊임 없이 벌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부단히 전쟁 접경에 몰아갔으며 매해 《작전계획 5027 우발 계획》, 《작전계획 5030》, 《신작전계획 5026》과 같은 새로운 조선 침략 전쟁 계획을 짜놓고 그 실행에 광분하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과 실현을 노린 경제, 군사적 봉쇄와 고립 압살책 동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오바마는 2009년 2월 공화국을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규정한 이전 정권의 작전 계획 《OPLAN 8010》의 개악안에 서명함으로써 대조선 핵 압살정책을 보다 강도 높게 집행해나갈 것을 집권 초기부터 확정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선언적 수준》에 있던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미본토가 공격당했을 때와 같이 한다는 《확장억제력제공》으로 구체화하고 2015년 6월에는 이전 시기의 북침 작전 계획들을 통합하여 핵전쟁 도발 각본인 《작전 계획 5015》를 작성하였으며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핵동력 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등 현대적인 핵전쟁 장비들을 투입하여 매해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와 《제도 전복》을 노린 《참수 작전》, 《죽집계식 타격》 훈련들을 로

풀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극악성은 집권 8년간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를 《도발》로 몰아가며 어중이떠중이들과 추종국들을 동원하여 수차례의 유엔 《결의안》을 조작하였을 뿐 아니라 피로들을 부추겨 북남 사이의 일체 대화와 협력을 모조리 차단하고 남조선인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싸드》 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침략자의 말로는

이 놀라운 현실은 우연이나 행운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사상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해에 공화국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혁신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거대한 사변들이 헌속적으로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 6일 12시, 전파를 타고 온 행성에 울려 퍼진 공화국의 뢰성 같은 첫 수소탄 시험 성공 보도.

이는 그대로 온갖 적대 세력들을 규합하여 형형색색의 제재와 압박, 더러운 핵병기로 조선을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의 발악적 기도를 산산조각내는 준엄한 철후였으며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얹혀 같이 담보하는 혁신의 대장거, 민족 사적 사변이었다.

《단한개로 세계의 어떤 대도시라도 다 파괴해버릴 수 있는 수소탄이야말로 〈절대 병기〉 중의 〈절대 병기〉》이다. 북은 이제 〈절대 병기〉의 보유가 확실한 단계에 이르렀다. 수소탄마저 보유한 북과 무슨 수로 싸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손을 들어야 한다.

공화국의 수소탄 시험 성공 보도가 나간 후 미국의 내부에서 울려나온 한숨섞인 목소리이다.

150년 전에는 외세의 침입에 기껏해야 화승총과 화살로 맞섰던 우리 민족이었다.

그랬던 조선이 오늘은 절대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최강의 민족으로 행성 위에 존엄 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지위에 서 일어난 거대한 사변이 아닐 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의 뜻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이으시고 민족 자주 위업을 끌까지 계승 완성해나가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 대응으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횡포한 제재와 군사적 위협 소동을 단호히 제압 분쇄 하시면서 강인 담대한 배짱과 불굴의 의지, 백두의 담력을 으뜸으로 해강 국진설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고 계신다.

주체적 국방력 강화의 대비 약을 파시한 대 출격 고체 로켓 발동기 시험 분출 및 계단 분리 시험에서의 단번 성공과 새형의 대륙간 탄도 로켓 대 출격 발동기 시험 분출 시험에서의 성공, 지상 대지 상증 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0》의 시험 발사에서의 대성공, 공화국의 핵 공격 능력의 일대 파시로 되는 전략 잠수함 탄도 탄수 중증 시험 발사에서의 연속적인 성공.

참으로 오늘의 선군 조선은 미국의 핵 폐권을 짓부시고 정의의 핵마치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리칠 수 있는 모든 전략 적수단들을 다 갖추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침략자 미국을 죽탕쳐버릴 막강한 핵 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 대국의 전력을 당당히 들어섰다.

주체 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융축된 힘의 거대한 폭발이며 일대 시위인 2016년의 격동의 사변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온 거래는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지켜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 있다.

지나온 혁신을 돌아보며 우리 거래는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 번영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다.

《서먼》호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기에 세기를 이어 우리 나라를 침략해온 미국은 지금 선군 조선의 활화산 같은 반미 보복의 지와 무진막강한 핵 공격 능력에 의해 국도의 불안감에 잠겨 있으며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가고 있다.

조선과 미국의 세기를 이어오는 싸움이 정의의 핵을 틀어쥔 조선의 승리로 끝나리라는 것은 이제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 되었다.

침략의 대포 소리는 머지 않아 가장 치열한 아메리카의 장송곡으로 뒤바뀔 것이다.

사회과학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영환

9월 8일은 미제가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지 71년이 되는 날이다.

반세기 동안 훨씬 넘는 기나긴 나날 미국이 남조선에 준것은 파연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도, 자유와 민주주의도 아니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40여년에 뒤이은 또 하나의 식민지 통치의 런속이었다.

본사편집국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에 속만을 강요한 미국의 죄악의 혁사를 고발하려고 한다.

* * *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들은 남조선에 상륙한 첫 날부터 조선 사람의 적으로 행동하였다.

이것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목격한 미국의 한 종군기자의 고백이다.

《해방자》의 너울을 쓰고 해방 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미국인들 자신이 인정한 것처

미국이 남조선에 준 것은 (1)

해방된 땅에 내짚은 침략의 군화밭

럼 강점자였으며 보호자가 아니라 침략자였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 지배 전략 실현에서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중요 총지인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대조선 정책을 작성·추진 시켰다.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대 초엽에 벌써 《조선 독립 방안》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여러 국제 회담들에서 일제를 대신하여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 미국이었다.

그 하나의 실례가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1943년 11월 까리파 회담선언에 《조선은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기만적인 조항을 집어 넣은 것이다.

미국은 일제의 군사 통치 하에 있던 조선민족이 《자치 능력》

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국들의 공동 관리 밑에서 그 것을 키운 다음 조선에 독립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신탁통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원래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점령국들 가운데에서도 저들이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의 초기 타산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에 이르러 군부는 전쟁 형태와 조건은 조선반도에 대한 신식 민주적 통치를 실현하려는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번져갔다.

1945년 8월 일제는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항복에 동의하는 것을 허락한 공화국 측에 통고하였다.

대일 전쟁을 통하여 단독으로 전조선반도를 강점하려던 미국에게 있어서 일제의 무조건 항복은 조선에 발불일 가능성이

을 끊어버리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에 위구를 느낀 미국은 전조선을 강점하려던 침략자 암을 일시 누르고 어떻게 하나 조선의 절반 땅이라도 차지 할 계획을 꾸미였다.

그 모략의 산물이 다름 아닌 38° 선에 의한 《작전 분단선》이었다. 말하자면 폐망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38° 선을 계선으로 하여 그 북쪽은 이전 조선군이 맡고 그 남쪽은 미군의 작전 지역으로 한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 후 정부에서 38° 선 문제를 심의하게 되었을 때에도 당시의 미군의 형편으로서는 병력 수송 능력이 걸려 남조선에 있는 일본군 무장 해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남조선 잡지 《신동아》도 《38° 선 분할과 미군 진주》가 단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37° 선까지 내려와 있었던 조선군이 그대로 부산까지 내려오는 것인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쉬웠을 것

이다. 따라서 38° 선 확정은 조선군이 조선반도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

그때 미국에게는 일본을 무장 해제 시킬 만한 능력도 가능성이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미국군 참모총장 마샬은 1945년 7월 24일 런던 학교 조선군 대조선 정부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구실로 침략의 군화밭을 내짚었다.

여기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란 침략의 군화밭을 가리우기 위한 보자기에 불과한 것인 것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미국이 결코 《해방자》가 아니며 남조선인 민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앗아간 강점자, 침략자임을 립증해주고 있다.

이때부터 남조선은 미군의 강점 하에 현대 관식 민지로 되고 남조선인민들은 또 다시 외세의 비참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황진옥

《년평균 생활비 5억원 사용과 딸의 대기업채용특혜의혹, 2차례의 아빠트매매를 통해 27억 5 400만원의 부당리익을 챙기고 교통법규위반은 상습적인것,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의 소유자.)

얼마전 남조선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조윤선의 부정부

미전에 현 『국무총리』황교안은 군복무를 기피하고 변호사로 있는 기간 100여 만US\$의 자금을 부정축재 하였으며 부동산투기, 세금회피, 학위위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국회인사청문회』 때 사회각계의 강한 사퇴압력을 받았던자이

부정부패의 전시장

다. 현법재판소 소장 박한철은 변호사로 있으면서 4개월동안 수십만US\$의 돈을 부정축재하였고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역시 부동산투기와 세금회피와 같은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이다. 이렇게 『정부』의 요직에 앉아있는자들의 파반수가 뒤가 궤徊한 자들이다.

부정부패행위는 현 집권자의 측근세력들속에서 더 옥더 우습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의 집권첫해인 2013년 미국행 각과정에 있은 청와대대변인 윤창중의 성추행범죄사건, 2014년의 정윤희 『국정』 개입사건, 지난해 청와대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수십만US\$의 돈을 비법적으로

받아먹은 성완종사건과 최근에 폭로된 진경준고위검사장부정부폐사건과 여기에 깊이 판여한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부정부폐협의사건 등 해마다 터진 각종 부정부폐사건들은 현 집권자의 죽증군이라고 하는자들이 저지른것 들이다.

많은 돈을 빼아들였다. 꼭 뒤에 부은 구정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집권자부터가 몸통아리에서 구린내가 꽉꽉 풍기니 출가들도 따라배워 하나같이 호색한, 도적놈, 사기협집꾼들 일수밖에 없다. 결국 왕도적밀에 새끼도적들이 번창하고있는셈이다.

권력을 타고앉아 청와대와 『정부』를 『범죄의 소굴』, 『부정부폐전렬장』으로 만들어놓은 현 집권자가 그 무슨 『정령』이니, 『부폐척결』이니 하고 입이 철새없이 떠들어대고 있으니 삶은 소 웃다가 꾸레미터질노릇이 아닌가. 남조선 인민들이 『썩어문드려진 청와대』, 『부폐로 무너져가는 망한민국』이라고 청와대안방주인에게 비난과 조소를 펴붓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세인이 손가락질하는 부패의 전시장이다.

김광률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고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속에서 우습하게 나타나고있는 부정부폐행위는 현 집권자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유신』 독재자가 집권 18년간 권력을 무제한 휘두르며 막대한 재물을 쟁겼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애비의 추악한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현 집권자는 20대에 벌써 『국구녀성봉사단』이라 는 단체에 손을 뻗쳐 부정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였는가 하면 애비의 유물인 『정수장학회』를 통해

경제와 민생을 도란에 빠뜨리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살궁리만 하는 부정부폐의 왕초인 박근혜와 썩은 『정권』이 그대로 있는 한 남조선은 부폐의 천국으로 더욱 화 할것이다.

김광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혜의 의도대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민족내부의 불신과 반목

하지만 그가 청와대의 앵무새마냥 남조선에 있을 때는 물론 해외

만을 조성시켜온 수치스러운 망동뿐이다. 오죽하면 남조선내부에

나가서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동족을 혐뜯고 북남대결에 앞장서는 꼴을 보니 사람구실하기는 죄집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세상사람들은 이미 홍용표와 같은 대결팡에

께서 인간다운 목소리를 들을

이 글렀다.